

1. 문제의 제기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및 기업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기업들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보유해 왔던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무는 경제 위기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였으며, 경제위기의 발생은 퇴출, 합병 및 업종전환 등을 통해 많은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발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도전요인은 급속한 경제성장 및 무역팽창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지난 20년 간 평균 10% 대의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이미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world factory floor)”으로서 더욱 빠른 속도로 무역대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경제권 내의 무역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 글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김주훈 편, 한국개발연구원 2005)의 제2장 “중국의 시장침투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에서의 진입과 퇴출을 중심으로”(최용석, 차문중)의 내용을 요약, 수정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실증적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원문을 참조하라.

* 경희대학교 조교수 (e-mail: choiy@khu.ac.kr)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무역도 전례 없이 팽창하고 있다. 1990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과 수입비중은 각각 0.9%와 3.2%에 불과하였으나, 이 후 15년 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2004년 중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498억 달러에 달해 한국 전체 수출의 19.6%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도 29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 및 한·중간 무역규모의 증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라는 대규모시장의 개방은 수출능력을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기업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창출하였으나, 노동집약적인 중·저위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등이 중요한 경제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현저하게 낮은 자본집약도 및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등 그 기초여건이 매우 허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중국수입품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중소기업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출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중국

기업들로부터의 수입품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진입, 퇴출 및 업종전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중국과의 경쟁이 중소기업체들의 진입, 퇴출 및 업종전환 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기업들의 이러한 동태적인 움직임이 산업전체의 구조조정을 구성하는 주된 조정과정이기 때문이다.

2.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구조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어떠한 산업군 및 제품군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산업에서 속한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보다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산업을 그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중기술 및 저기술 산업으로 분류하고, 각 산업분류별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를 계산한다.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분류는 OECD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OECD는 산업별 R&D 집중도(R&D intensity)를 기준으로 개별산업들을 고기술산업, 중기술산업, 저기술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산업분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국내기업 출하액+총수입액)'으로 정의는 자료로서 해당산업의 제품에 대한 국내의 총수요 중 중

〈표 1〉 OECD 기준에 따른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기술 수준	해당 산업
고기술 산업	사무용·컴퓨터 장비, 전자산업, 영·음향 및 통신장비, 항공기 제조업
중기술 산업	석유화학, 비전기/전기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산업, 선박제조업
저기술 산업	음식료품, 섬유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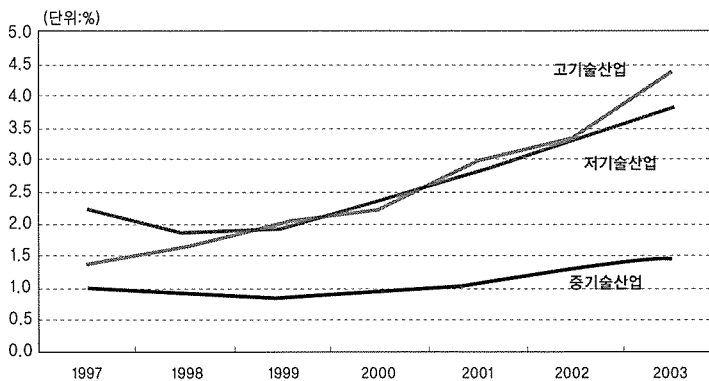
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높을수록 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수입품과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OECD 기술수준별 중국 수입침투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아래 그림을 보면,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저기술 산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패턴이 헉셔-올린(Heckscher-Ohlin)류의 전통적인 무역이론이 예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즉 노동이라는 투입요소를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산출물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이 시사하고 있는 부정적인 사실(bad news)은 저기술 산업에서만 아니라,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R&D 집약적인 고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침투율이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저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침투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고기술산업 분야에서 이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고기술산업 분야의 완제품 수입이 많기 때문은 아니며, 주로 우리나라에서 고기술

〈그림 1〉 기술수준별 중국 수입침투율



산업 분야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부품의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기술산업 분야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을 위한 국내 부품시장에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담당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저기술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고기술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수입침투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존게임

앞서 지적한 대로 기업의 진입, 퇴출 및 업종전환 행태는 산업전체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태에 중국과의 수입경쟁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교역증대가 국내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장조직이론의 시장구조모형(market structure model)과 관련된 많은 기존 문헌²⁾들은 기업의 진입, 퇴출 및 업종전환 등의 행태가 무역패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즉 진입 또는 퇴출장벽(entry/exit barrier)과 관련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시사하고 있다. 즉, 산업의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 평균적인 기업의 규모(size), 가

격-비용마진(price-cost margin) 등 산업특성 변수들(industry-characteristic variables)도 기업의 진입, 퇴출 및 업종전환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진입, 퇴출 및 업종변환 행태와 관련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과의 경쟁 뿐 아니라 다양한 진입 또는 퇴출장벽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기업의 진입, 퇴출 및 업종변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서 중국 및 OECD국가³⁾로부터의 산업별 수입침투율과 함께, 산업의 자본집약도, 평균기업의 자산규모, 산업의 평균 가격-비용마진 등을 고려한 실증분석 모형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주로 저기술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퇴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과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을 생산하는 저부가가치, 저기술 기업들이 중국의 수입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기술 산업에 있어서는 비록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저기술 산업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수입제품과의 경쟁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용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들어 고기술 산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영향은 조만간 고기술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OECD로부터의 수입경쟁의 효과는 주로 중기술 및 고기술 산업에서 퇴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동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OECD로부터 수입되는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 의해 퇴출·폐업·업종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으나 반면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 역시 활발한 것을 시사한다. 이는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에 있어서는 OECD 국가와의 수입경쟁이 끊임없는 자원의 재배분을 촉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진입과 퇴출 그리고 업종변경 등은 경제 전체의 자원 재배분을 통해 동태적 비교우위(dynamic comparative advantage)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커니즘 작용하여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이 중국 및 OECD로부터의 수입경쟁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은 비교우위가 이미 저하된 산업의 경제적 자원들을 보다 비교우위를 갖춘 산업으로 재배분 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결과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이 무역이론에서 예측되는 방향, 즉 보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촉진시켰다고 보기에는 다소 회의적인 증거들도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무역이론이 예측하는 것은 중국과의 수입경쟁 격화가 발생하여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진입이 증가하여야 할 것인데, 자료의 분석결과 그러한 움직임이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퇴출되거나 업종을 변경한 기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 이동하였는가를 추적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 결과 개별산업으로부터 퇴출되거나 업종을 변경한 기업들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한 것은 전체의 50% 이하이며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분석방법은 같은 업종에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본집약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분석기간 동안 뚜렷한 자본집약도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가지 측면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장구조모형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본집약도는 기업의 진입장벽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이를 가능하게 할만한 자본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상에서의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교역증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의 무역은 중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기술 산업으로의 진입을 저해하고 퇴출을 증가시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기술 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러한 구조조정이 무역이론에서 예측하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즉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원이 재배분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중국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보다 기술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4. 결어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미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동북아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제1의 수출 시장이자 제2의 수입 상대국이 된 중국경제는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서까지도 우리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학계, 정부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수출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그 주된 경쟁시장이 국내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은 국내시장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비교

적 짧은 기간 동안의 실증분석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특히 저기술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산업으로의 진입이 저해되고 퇴출이 증가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가속화하여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생존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무역이론은 예견하는 바대로 그 해답은 바로 보다 기술집약적 그리고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들의 자원을 재배분하여 산업과 기업의 자본-노동비율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업 가치와 생산품의 질(quality ladder)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추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동태적 비교우위의 창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중소기업들의 자본에 대한 접근(access)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본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 1) 이 수치는 홍콩과의 무역량은 제외한

것이며, 홍콩과의 무역량을 포함시킬 경우 한국의 對중국 수출 및 수입비중은 2004년 현재 26.2%, 14.7%이다.

- 2) 예를 들어 Bernard, A. and B. Jensen(2001, 2004), Bernard, A., B. Jensen and P. Schott(2002) 등을 참조하라.
- 3)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 이외에 OECD국가로부터의 수입침투율도 포함시킨 것은 비록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주된 관심이기는 하지만 OECD국가와의 경쟁 역시 기업의 진입, 퇴출 및 업종변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주훈(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Bernard, A. and B. Jensen(2001). "Why Dies? International Trade, Market Structure,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NBER Working Paper 8327, NBER, Mass.

Bernard, A. and B. Jensen(2004). "Entry, Expansion, and Intensity in the US Export Boom, 1987-1992."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4), pp. 662-675.

Bernard, A., B. Jensen and P. Schott(2002), "Survival of the Best Fit: Competition from Low Wage Counties and the(Uneven) Growth of US Manufacturing Plants," NBER Working Paper 9170, NBER, Mass.